

# “미디어아트 함께 배우고 알리고 싶어요”

5일 오전 만난 가수 겸 화가 솔비(32·본명 권지인)는 털털하고 쾌활한 성격이 엿보였다. TV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주변인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며 연예인 특유의 가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광주문화재단은 홍보대사로 솔비와 이이남 작가를 위촉했다.



5일 광주문화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이남 작가와 가수 솔비가 환하게 웃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문화재단 홍보대사 위촉된 솔비·이이남 작가

SNS 친구·개인전 초대 등 인연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해 든든”

“블랙스완’ 뮤직비디오 독특한 인상”

6월 아셈회의 때 협업 전시 계획도



가수 솔비가 360도 카메라로 제작한 신곡 ‘블랙스완’ 뮤직비디오 장면.

솔비는 “이이남 작가와 함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문화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기쁘다”며 “저처럼 미디어아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가려고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작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솔비는 위촉식 일행으로 진행된 문화보듬 10000센터 ‘문화나무 심기’에 참여하며 직접 씨앗을 넣는 과정이 재미있는지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다. ‘문화나무 심기’는 시민대표 홍운진(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대표)씨와 딸 정희원(3)양, 댄서 커를 조수영(여·25)·신승훈(27)씨와 함께 했다. 솔비는 가수 외에도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독특한 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며 ‘아트레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셉트 컬래버레이션 시리즈 ‘트레이스(Trace)’전을 열었고 올해 3월에는 두번째 개인전 ‘블랙스완-거짓된 자아들’을 개최하며 화가로 변신했다. 가수 솔비와 진짜 모습(권지인) 사이에서 했던 고민들을, 두 자아가 협업한 형식으로 그림과 영상을 통해 표현했다.

솔비는 “연예계 생활을 하던 중 슬럼프가 찾아왔고 우연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마지막 친구를 만난 것 처럼 그림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작품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솔비는 이 작가와의 인연으로 홍보대사에 참여했다. 이 작가가 지난 겨울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한 작품 ‘피에타’를 감명깊게 본 그는 SNS를 통해 친구가 됐다. 지난 3월 개인전 때 솔비는 이 작가를 초대하며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했다.

솔비는 “공중에 떠오른 예수와 슬퍼하는 마리아를 표현한 ‘피에타’를 본 후 이 작가를 존경하고 있

었다”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니 앞으로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 작가는 “솔비씨의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블랙스완’ 뮤직비디오를 인상 깊게 봤다”며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영상이었으며 같이 협업을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작가도 같은달 솔비를 담당 ‘이이남 아트센터’로 초대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동석했던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홍보대사직을 제의하자 흔쾌히 수락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솔비는 광주 방문 소감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규모에 놀랐어요. 화순 고인돌공원도 방문했는데 강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광주·전남이 문화가 발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는 6월 이 둘은 아셈문화장관회의의 기간에 맞춰 문화전당에서 협업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로서 미디어아트를 알리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전 미디어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아직 ‘작가’로 불려지는 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남들에게 당당해질 때까지 꾸준히 미술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예술에는 뚜렷한 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닐까요.” (솔비)

한편 이이남 작가는 지난 3월 ‘2016 아트파리아 트페아’에 참여하며 ‘모나리자 페허(Ruins monalisa)’, ‘김홍도 목죽도’ 등 작품을 세계에 선보였다. 이번달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특별전, 독일 베를린 안도파인아트 개인전, 5월 노르웨이 ‘한국아티스트 그룹전’에 참여할 계획이다. 5월 스위스 취리히 리트베르크 뮤지엄에서 열리는 ‘세계의 정원전’에는 한국대표로서 담당 소쇄원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김환기 ‘무제’ 48억 6750만원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홍콩인 컬렉터 낙찰

신안 출신 수화(樹畵) 김환기(1913~1974)의 1970년 작품이 4일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바꿔놓았다.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홍콩 르네상스 하버뷰 호텔 8층에서 진행된 제17회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무제’(Untitled)는 약 48억 6750만원(3300만 홍콩 달러)에 낙찰됐다. 이로써 이 작품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47억2100만원에 낙찰된 같은 작가 김환기의 1971년작 전면 점화(點畵) ‘19-VII-71 #209’를 제치고 국내 작가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 작품은 2007년 5월 45억2000만원에 낙찰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였지만 그 사이 김환기의 작품이 두 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경합이 벌어졌다. 총 15회에 가까운 경합이 이어졌고 결국 현장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낙찰자는 홍콩인 남성 컬렉터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인을 포함해 현장에서 7~8명의 응찰이 이어지다가 3000만 홍콩 달러를 넘어 서자 유력 컬렉터가 전화로 응찰하는 등

## 광주여성재단 ‘She say He say-나를 만나는 사물’전

4월말까지 작가 9명 참여

14일 체험 참가자 모집도

제1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여성 전시관은 4월말까지 ‘She say He say-나를 만나는 사물전’을 진행 중이다. 주홍 작가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고근호, 김해성, 한희원, 리일천 등 9명의 작가들이 각자 작품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물을 함께 선보이는 전시다.



주홍 작 ‘더 마더’

재단은 기획자 주홍씨와 함께 ‘도미노 셀을 이용한 컬러풀 마인드’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성전시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 및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www.gjwf.or.kr. 문의 062-670-7482. /김미은기자 mekim@

## 피아니스트 김준현 독주회...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준현 독주회가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자 과정을 졸업했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고전과 낭만시대 작곡가의 소나타 작품으로 구성했다. 스카를 라티 ‘소나타’, 베토벤 소나타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열정’, 리스트 ‘나단조 소나타’가 연주된다.

국내 및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무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솔리스트 및 전문연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대와 광주예고에 출강중이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10-6331-6834.

광주예고를 거쳐 추계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친 그는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프랑스 제네발리에 국립음악원 최고연주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